

## 『황무지』 한국어 번역본 문체의 통시적 고찰

김 태 훈  
(전주대학교)

**Kim, Tae Hoon.** “A Diachronic Study of the Korean Translations Styles on *The Waste Lan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21-42. This study seeks to compare and examine Korean translation styles of *The Waste Land*. Eliot uses numerous quotations and various literary techniques in *The Waste Land* to deliver his message to readers. Eliot reveals his own style of writing, which should be correctly translated as well. To compare Korean translation styles, translated books which were published from the 1950s to the 2010s a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As a result, most Korean translations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in translation styles from early translation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ators’ styles were revealed. Translators tried to convey poetic meaning through words and sentences that readers living in that era could understand. For readability of readers, translators should use expressions and words which are used in the era of translation. (Jeonju University)

**Key Words:** *The Waste Land*, T.S. Eliot, translation styles, Korean translation, diachronic study

##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황무지』(*The Waste Land*)는 1922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정인섭과 박용철에 의해 번역된 일부가 1935년에 등장하였다. 1949년에 들어서야 이인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황무지』 전체를 번역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는 다양한 번역가들에 의해 매년 출판되고 있다.

번역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다양한 기계 번역 매체를 쉽게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은 올바른 번역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문학 번역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학자는 문학을 번역하면 원작의 느낌을 잃는 것으로 보고 번역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특히, 시와 같은 장르는 번역의 불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번역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원작을 망친다는 이유로 번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산문과 달리 시는 가장 번역이 어려운 문학 장르다. 시 번역이 가능하다면 다른 문학 장르의 번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시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번역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이 과거의 명작들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시인은 리듬과 운율 등 언어의 다양한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를 창작한다. 시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텍스트 안에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고, 운율을 통해 시인의 의도와 메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황무지』는 이러한 시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 이외에도 더 많은 기법이 사용됐고, 많은 인용문의 연결로 인해 작가의 의도는 더욱 깊이 숨어있다.

문체는 작가가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체는 작품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문체는 작가가 자신의 사상, 현상을 보는 관점, 자아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작품 안에서 문체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구조가 전체의 의미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토마스 스텐스 엘리엇(Thomas Sterns Eliot)은 몽타주나 모자이크와 같은 미술 표현법을 사용하여 『황무지』를 창작했다. 수많은 상징과 이미지, 사건, 상황, 다양한 인용을 사용하여 주제와 메시지를 표현한다. 장면과 장면을 수시로 바꾸고, 옛것과 현대의 것을 대비시킨다. 사용하는 시어 역시 엘리엇 시대 이전의 전통 시어 대신 일상어를 사용한다. 이런 요소들이 『황무지』의 특징이며, 엘리엇의 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번역가의 관점에서 보면 『황무지』는 다양한 문학 기법이 사용되고 434행으로 이루어진 장시라는 면에서 번역이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런데도 『황무지』의 번역에 대해 연구할 가치는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황무지』는 1930년대에 최초의 일부 번역이 시도된 이후 2010년대의 말까지 70종이 넘는 번역본이 출판되

었다. 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나 번역에 관련된 연구는 오역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번역문제에 관련된 연구는 산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의 번역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번역가들이 『황무지』를 어떻게 번역해 냈는가에 대해 문체를 중심으로 번역본을 통시적 시점으로 비교하고 분석한다. 통시적 시점으로 번역본을 살펴보는 것은 번역 텍스트의 의미를 찾기 위해 번역본이 등장한 시대의 삶, 번역의 자료, 번역본 편집원인 등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 텍스트의 외적 측면이 텍스트의 의미에 주는 영향을 찾고자 함이다.

『황무지』의 문체를 번역가들이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살피기 위해 번역본이 출간된 시기를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나누고 각각 이창배, 이재호, 황동규, 이정기, 최희섭, 김기태, 민재식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통시적 시점으로 고찰한다. 번역본은 출판 횟수가 많고, 비교적 번역 문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작품으로 선정했다.

1950년대는 휴전 이후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해온 외국 유학생들과 그들의 제자에 의한 번역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번역가이자 시인인 이창배는 『황무지』의 최초 완역을 해낸 이인수의 고려대 제자로 스승의 번역을 보조했고 1959년 자신의 번역시집을 출간한다. 1960-70년대는 우리나라 외국 서적의 수입과 번역이 국가 주도를 통해 크게 양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같은 국란을 겪으며 국민들의 교육과 문학적 결핍을 개선해야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시기의 독자들은 외국 문학이나 번역문학을 읽는 것이 타인에 대한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번역가들도 다양한 독자들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했다. 이정기는 원작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저히 시라고 느낄 수 없는 번역물을 내놓기도 했다. 1980-90년대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새로운 번역가와 문체 스타일이 많이 줄어든다. 이전 시기부터 활동해온 유명 영문학자와 시인에 의한 번역들이 출판물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문자에서 영상으로 바뀌는 시기인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0년대 번역은 독자를 위해 번역 외에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인 번역물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전자책이 등장한다. 민재식의 『황무지』 번역문체의 경우 인용문에 대한

해석과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붙여 친절한 번역이 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번역본 분석에 앞서 번역을 분석하는 기재인 문체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번역본에도 번역가의 문체가 구현되는 과정과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본다.

## II. 문체론의 변천과 시 번역

베이커(Baker Mona)는 번역문체를 “번역가가 선호하고 반복된 언어 행위의 패턴”(245)이라고 정의했다. 베이커는 코퍼스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한 정량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번역가의 번역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냈다. 베이커가 분석을 통해 원저자의 문체와는 다르게 번역가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고유한 번역가의 문체가 분명히 존재하며, 번역가의 문체 역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번역가의 문체가 원천언어(Source Language)<sup>1</sup>나 작가의 문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번역가의 번역본들을 조사하는 것보다 하나의 원천텍스트(Source Text)를 다양한 번역가가 같은 목표텍스트(Target Text)로 번역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작가 및 SL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Baker 261).

프랑스의 비네와 다르벨네(Vinay and Darbelnet)는 언어 사이의 문체론적 비교 분석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다른 언어로 쓰인 텍스트의 차이에 따른 번역 전략과 절차를 제시했다.

비교문체론적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차용, 모사, 직역, 치환, 변조, 등가, 번안의 7가지 번역기법을 제안했다(61-69). 이 기법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는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SL에서 TL에 이르는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이이며, 이러한 번역 전이는 번역문체의 분석을 위한 정성적 분석기재로 활용이 가능하다(서정목 151). 본 연구에서 이 비교문체론에서 언급한 번역기법을 『황

<sup>1</sup> 본고에서 원천언어(Source Language)는 SL로 원천텍스트(Source Text)는 ST로 약기하며, 목표언어(Target Language)는 TL, 목표텍스트(Target Text)는 TT로 표기한다.

무지』의 번역본을 비교하는 분석기재로 활용하고자 한다.

페카넨(Pekkanen, Hilkka)은 번역과정에서 생기는 변환을 “의무적 변환과 선택적 변환”(3)으로 구분한다. 의무적 변환은 언어 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환이다. 선택적 변환은 의무적 변환에 대해 번역가가 여러 가지 번역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고 변환하는 방법이다. 선택적 변환은 텍스트를 확대하고 줄이는 것으로 나누고, 여기서 확대는 텍스트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체는 ST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문장의 길이를 늘이는 것이고, 추가는 ST에 없는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축소에 있어 대체는 ST의 의미는 유지하고, 문장의 길이가 줄어든다. 선택적 변환은 곧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의 변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Popovič 81),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번역가의 문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체론 연구를 기반으로 번역가는 번역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드러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번역가 자신이 문체를 드러내기 전에 시 번역은 다음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ST와 TT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차이점들을 고려해야한다. 어휘 차용, 통사 구조와 같은 표면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텍스트가 차지하는 문화적 위치에 주목해야 한다. TT 문화에만 중점을 두고 변안<sup>2</sup>을 시도한다면 원작의 느낌이 퇴색되기 마련이다. 셋째, 시의 형태를 갖추어 번역에 나타내야 한다. 시는 행과 연, 음보와 음율, 음절과 같은 외적 표현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넷째, 시는 일종의 “미적 예술”(Barnstone 1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시 안의 미적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시 안에서 작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리듬이나 운, 단어, 대구법, 대응과 같은 문학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곧 작가의 문체가 된다. 문체는 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기체적인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작품 분석을 통해 엘리엇이 『황무지』를 통해 나타낸 자신의 문체가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통시적 시점으로 비교하고 고찰한다.

<sup>2</sup> 변안은 ST 문화에는 존재하지만 TT 문화에는 없는 단어를 TT문화에 맞게 임의로 바꾸는 번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황무지』 2장의 제목인 “The Chess Game”을 일부 번역가는 “장기 환관”으로 번역했다. 이는 작가가 제목에서 의도하고자 한 바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으로 볼 수 있다.

### Ⅲ. 『황무지』 번역 문체의 통시적 고찰

작품 분석에서는 『황무지』 번역본들 중 번역가의 문체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번역본을 선정하여 작가의 문체가 번역가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나타나는 번역문체의 특징과 기법을 분석한다. 분석에 살펴볼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구분	발행년도	번역본 제목	역자
TT1	1959	엘리웃선집	이창배
TT2	1967	장미와 나이팅게일	이재호
TT3	1979	세계명시선	황동규
TT4	1989	어느 여인의 초상	이정기
TT5	1995	영국 현대시의 이해	최희섭
TT6	2000	황무지	김기태
TT7	2012	삼도천 요즘 이야기	민재식

『황무지』의 번역문체 특징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목적은 이 작품이 한국에 영시가 처음 소개될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오역 여부에 주목한다. 번역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번역이 가능한 시대이지만 문학 번역 중 특히 시 번역은 기계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황무지』의 시대에 따른 문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황무지』는 영시이지만 작품 안에 그리스어, 라틴어, 이태리어, 심지어 산스크리트어 이르는 다양한 인용문이 등장한다. 다양한 언어가 어떤 번역 방법을 통해 한국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주목할 일이다. 통시적 고찰은 대개 번역본의 외적 측면에 주목하는 비교 방법이지만, 『황무지』의 특성상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번역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연구는 통시적 고찰과 더불어 비교를 위한 ST에 담긴 배경과 그것이 TT에서도 잘 구현되는지 함께 살펴본다.

『황무지』 번역본의 통시적 비교를 위해 번역본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시기를 분류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번

역본은 각 시대에 처음 시도된 번역이거나 문체적 특징이 서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비교자료들은 ST의 기법과 메시지가 TT에서도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비교에 앞서 ST의 메시지와 인용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다.

번역문체를 고찰하기 위해 『황무지』의 세 가지 부분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1장의 첫머리 1행-7행 부분이다. 시의 첫머리는 시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황무지』의 첫머리는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기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분위기의 결정과 내용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제3장의 196행-202행이다. 엘리엇은 독자들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묘사 기법을 사용하여 분위기에 생동감을 준다. 이 부분에서 세밀한 장면묘사 기법의 번역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엘리엇은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어 인용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 원문이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다. 제3장 202행의 외국어 인용문을 예로 들어 영어가 아닌 외국어 번역을 어떤 방법으로 표기했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 359행-365행 부분을 살펴볼 것이며, 이 부분은 한 신비한 인물의 인상착의와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의 선택은 번역가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시대 상황이나 대상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시적 고찰을 통해 상황에 맞는 등가(equivalence)<sup>3</sup>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먼저, 제1장 1행-7행에 나타나는 ST와 TT의 문체를 비교한다.

ST: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sup>3</sup> 등가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값이나 가치이다. 번역에서 등가란 ST와 TT 사이에 등가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번역 등가는 단어와 단어의 일대일 대응 교환이 아닌 ST의 장르, 문체, 정보, 작가의 의도가 번역에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CPP<sup>4</sup> 61)

TT1: 四月은 가장 殘忍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記憶과 慾望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忘却의 눈으로 大地를 싸감고,  
 마른 球根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이창배 1959, 117)

TT2: 四月은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 꽃을  
 죽은 땅에서 피우며, 追憶과  
 慾望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듯이 해주었었다. 大地를  
 忘却의 눈으로 덮고, 마른 球根으로  
 작은 生命을 길러주며. (이재호 1967, 248)

TT3: 四月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어,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大地를 덮고 마른 球根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주었다. (황동규 1979, 46)

TT4: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은 자라며  
 추억과 욕망은 뒤섞여 일고  
 잠든 뿌리는 봄비에 깨어난다  
 매장된 영혼은 소생을 모른다  
 망각의 눈에 대지가 덮인 채  
 하찮은 목숨을 메마른 감자로 잇던

<sup>4</sup> 본고에서 고찰을 위해 인용한 『황무지』의 원천텍스트는 1975년 Faber and Faber에서 출간된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이며, CPP로 표기한다.



겨울은 그래도 따뜻했다 (이정기 1989, 44)

TT5: 4월은 가장 끔찍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자라고,  
 추억과 정욕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가 봄비로 깨우쳐지고,  
 겨울이 차라리 따스했거니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고  
 메마른 구근으로 작은 목숨을 이어 줬거니 (최희섭 1995, 199)

TT6: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며, (김기태 2000, 61)

TT7: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들을 깨운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지,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었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먹여 살렸지. (민재식 2012, 60)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번역된 첫 행은 『황무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들 어봤음직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다. 이 부분은 프랑스 시인 떼오필 고티에 (Théophile Gautier)의 시 「감상적인 달빛」(*Clair de Lune Sentimental*)에서 등장한 “4월”과 “아주 잔인한”에서 암시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안중은 99). 엘리엇에게 4월은 시인이자 친구인 브루크와 베르드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 대한 추억을 표현한 것이다. 첫 행은 초서(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의 “희망적인 4월”을 역설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바

꾼 것이다. 엘리엇이 바라보는 4월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계절이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이 쿠마에의 무녀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어부왕의 초라한 삶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본 것이다.

첫 행은 모든 TT들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었다. 서술어는 삭제되어 첫 행의 시작을 짧은 호흡으로 읽게 만든다. 시대를 지나도 번역이 동일한 것은 『황무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며 독자들에게 각인된 효과 때문에 다른 번역을 내놓는 일은 시 전체가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다음은 행수의 일치성과 ST의 리듬감 번역에서 구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4행, 5-7행에서 분사 “~ing”를 사용해 반복적 운율효과를 주었다. 『황무지』는 분사 구문과 같은 겹문장을 통해 보여주는 운율효과가 눈에 띈다. 이런 운율 효과는 내면의 감정과 상황을 묘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대체로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긴 문장을 이용한 것은 황폐한 당시 사회 모습을 연속적으로 묘사하기 위함이다. 번역을 살펴보면 TT1은 ST와 동일하게 행수를 지켰다. 분사의 경우 “~고”, “~며”, “~흔든다”라고 번역하여 봄이 주는 시간과 사건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ST의 리듬감을 재현했다. TT2는 행수는 일치시켰으나, “라이락 꽃을”을 1행에 두어 ST와 같은 형태로 문장을 배치했으나, TT1 보다 리듬감을 주고 있지 않다. TT3는 총 6행으로 행수는 줄어들었고, ST에 사용된 분사의 리듬감을 살리지 않았다. TT4는 8행으로 행수가 늘어났으며, “매장된 영혼은 소생을 모른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TT5는 7행으로 행수는 일치됐고, 분사의 번역을 “~고”라고 규칙성 있게 번역했다. 모든 TT 중 분사의 리듬감을 가장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TT6는 행수는 동일하며, 세 번 반복된 “~ing”에 대해 “피우며”, “뒤섞고”만 번역했으며 다음 문장은 서술어로 마무리했다. TT7 역시 행수는 맞췄으며, TT6와 비슷한 양상으로 번역되었다. TT3와 TT4를 제외하고 대체로 행수는 ST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행수가 줄어든 경우는 시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행수가 늘어나는 경우 다소 산문과 같은 느낌을 준다. 시적 분위기를 위해 행수는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ST의 운율효과는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본들이 ‘~하고’, ‘~하며’ 등으로 분사구문의 의미를 번역했다. 분사구문에 사용된 분사는 동사와 접

속사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번역문에서는 대체로 분리해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시의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서 ST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ing’의 번역을 TT에서 동일한 연결조사로 나타내야 한다. ST의 시적 운율 효과는 TT5에서 가장 잘 구현됐다고 볼 있는 것이다.

ST에 없는 수식어가 추가된 경우도 볼 수 있다. ST의 5행을 TT1은 원문에 없는 “차라리”라는 부사를 추가하였다. TT2, TT3와 TT5는 “오히려”라는 부사를 공통으로 추가했고, TT4는 “그래도”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TT6는 ST의 문장을 추가 없이 번역했다. 번역에 수식어를 추가하는 것은 독자에게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분위기에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다.

제1장의 첫머리에서 살펴본 특징은 내용적인 측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운율효과를 ST와 사용된 분사를 연결조사를 사용하여 TT에서도 살리고자 했다. 이는 현대에까지 동일한 번역패턴을 보인다. 번역본들의 외적 측면은 TT1과 TT2는 세로쓰기 구성이며, TT1-TT3는 한자어의 사용도 눈에 띈다. 이후 세대의 번역은 제목도 한글로 표기를 한 후에 한자를 괄호에 넣어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선말기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시기를 거쳐 70년대말까지 표준어가 정착하지 못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가로쓰기와 문학에서 한글 표준어의 사용으로 한자 번역이 사라지는 모습이다.

두 번째로 제3장 196행-202행의 ST와 TT를 살펴본다.

ST: But at my back from time to time I hear  
 The sound of horns and motors, which shall bring  
 Sweeney to Mrs.Porter in the spring.  
 O the moon shone bright on Mrs.Porter  
 And on her daughter  
 They wash their feet in soda water  
*Et 0 ces voix d'enfants, chantant dans la coupole! (CPP 67)*

TT1: 그러나 나는 때때로 내 등에서  
 警笛과 自動車의 모터소리를 듣는다. 이 차는  
 봄에 스위니를 신고 포오터夫人에게로 달릴 것이다.

오오 달이 비친다. 燦爛히 포오터夫人과 그 딸에게.  
 그들은 소오다水에 발을 씻고 있고나.  
 오오 圓形天井 아래에 合唱하는 少年聖歌隊의 노래여! (122)

TT2: 그러나 등뒤에서 나는 때때로 듣는다.  
 警笛과 自動車소리, 봄이 오면 그것은  
 스위이니를 포오터夫人에게 태우고 가리라  
 오 포오터夫人과  
 그녀의 딸위에 흰히 비친 달이어  
 母女는 소다水로 발을 씻는다.  
**그리고 오 圓天井 속에서 合唱하는 少年聖歌隊의  
 목소리여!** (263-264)

TT3: 허나 등 뒤에서 나는 때로 듣는다.  
 클랙슨소리와 엔진소리를. 그 소리는  
 스위니를 샘물 속에 있는 포어터夫人에게 데  
 려가리라.  
 오 달빛이 포어터夫人과  
 그네의 딸 위로 쏟아진다.  
 그들은 소다水에 발을 씻는다  
 《그리고 오 둥근 천정 속에서 합창하는 아이  
 들의 노래소리여!》 (46)

TT4: 그러나 등 뒤에서 이따금씩 나는 들노라  
 봄철이 되면 동물성 스위니 씨(氏)를  
 포주인 포어터 부인에게 데리고 가는  
 경적과 엔진의 소리를  
 생명의 사이클과 생명 속 죽음의 예고를  
 순결의 월신(月神) 디이하나가 봄에  
 그녀의 요정과 더불어 알몸뚱이로  
 목욕하는 모습을 엿볼  
 엽사 악테온을 안내하는 그 경적 소리를  
 오 달빛은 포어터 부인 위에  
 그녀의 딸 위에 밝게도 비치었다

모녀는 소다수 대야에서 발을 씻는다  
 디어아나의 목욕인 양 발을 씻는다  
 성배를 찾아 간 파르시발 기사(騎士)가  
 온갖 색욕의 유혹을 물리치며  
 성배성(聖杯城)입구에서 재계(齋戒)하는 발을 씻듯  
 모녀는 소다수 대야에서 발을 씻는다  
 그래서인지 파르시발 기사가 듣던  
 오, 둥근 지붕 밑 어린이들의 합창소리여! (63)<sup>5</sup>

TT5: 허나 나의 등 뒤에선 이따금씩  
 스위니를 목욕하는 포터 부인에게로 데려다 주는  
 엔진소리와 고동소리가 들려온다.  
 오 포터 모녀를  
 휘영청 비치는 달이여  
 그들은 소다수에 발을 씻는데  
 아 둥근 지붕 아래 합창하는 어린이들의 노랫소리여! (205)

TT6: 그러나 등 뒤에서 나는 때로 듣는다.  
 경적소리와 엔진소리를  
 봄이 오면 그 차가  
 스위니를 샘물 속에 있는 포터부인에게 데려가리라.  
 오 달빛이 포터 부인과  
 그녀의 딸 위로 쏟아진다.  
 그들은 소다수에 발을 씻는다.  
 그리고 오 둥근 천정 속에서 합창하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여! (82)

TT7: 허나 내 등 뒤에서 이따금 들려온다  
 경적과 엔진 소리가, 우물에서 몸 씻는 포터 부인에게  
 스위니를 데려다 줄 그 소리가.  
 오오 찬란히 내려쬐는 달빛  
 포터 부인과 그녀 딸 머리 위에,

<sup>5</sup> 이정기의 번역을 살펴보면 『황무지』의 원문과 엘리엇이 시에 사용한 인용문, 번역가 자신의 해석을 모두 번역에 담아냈다. 원문의 원래 느낌은 전달되지 않고 특유의 리듬감 역시 사라졌다. 시 번역에 있어 흔히 언급되고 있는 재창조된 번역의 예라 볼 수 있다.

모녀는 소다수에 발을 씻는다  
그리고 오오 둥근 지붕의 성당 안에서 노래하는 소년  
합창단의 노랫소리여! (88)

엘리엇은 앤드루 마벨(Andrew Marvell)의 『수줍은 애인에게』(*To his Coy Mistress*)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CPP 77). 내용은 스위니를 포주인 포터 여사에게 차에 태워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히 엘리엇의 메시지와 사용된 기법 간의 일치를 보여준다.

번역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199행-201행의 “O the moon shone bright on Mrs. Porter And on her daughter”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터 부인은 포주이며 그녀의 딸들은 창녀이다. 타락한 존재인 이들이 소다수에 발을 씻는 장면은 ‘달’이 주는 음지의 이미지와 ‘소다수’라는 순수의 이미지를 대응시킨다.

먼저 TT1은 “오오 달이 비친다. 燦爛히 포오터夫人과 그 딸에게. 그들은 소오다수에 발을 씻고 있고나.”라고 번역했다. 감탄사 “O”를 반복했고, ST에 있는 “bright”를 삭제했다. ST는 단문 구조이지만 TT1은 이 부분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었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문장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문장을 나누어 호흡을 짧게 가져가서 상황을 긴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TT2는 TT1과 달리 ST의 단어를 일대일 대응하여 직역했으며, 마지막 서술어를 ‘-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여’라고 부르는 말로 시적 분위기를 살렸다. TT3는 “쏟아진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단어의 사용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번역가의 문체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TT4는 ST에서 “on”을 반복 사용한 것처럼 “위에”를 반복해서 표현했다. 또한, 서술어를 ST의 과거 시제에 맞게 번역했다. TT4의 경우 ST에 충실한 번역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

TT5는 ST의 문장 성분을 지키지 않고 재구성하여 평서문을 직접 인용문의 형태로 바꾼 것이다. 주어는 생략했으며 수식어를 문장 전면 배치했다. 서술어인 “Shone”을 “비치는”이라고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 번역했다. 이런 효과는 ST에서 평서문의 형태인 문장이 TT에서 대화체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변환은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며, 정성열은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대화 부분이 실제 주인공처럼 억양을 바꿀 수도 있다”(68)라고 말한다. 문장 형태를 변화하여 번역은 독자의 가독성을 생각한 결과라고 하겠다.

TT6는 TT3처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TT7은 ST의 수식어 의미를 살려 번역했고, “머리 위에”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 경우 단어의 추가는 시에서 주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이다.

ST의 202행 “*Et 0 ces voix d'enfants, chantant dans la coupole*”는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Paul Verlaine)의 소네트인 『파르지팔』(*Parsifal*)의 마지막 부분을 엘리엇이 인용한 것이다.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영화 촬영과 같은 이미지 기법을 사용해 이미지를 묘사했다. “*la coupole*”은 성당의 아치형 천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어린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TT1은 “오오 圓形天井 아래에 습창하는 少年聖歌隊의 노래여!”라고 번역했다. 감탄사 “O”를 “오오”로 반복했고, 기독교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인 “성가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명확하게 번역에 나타내고자 했다. 시의 후반부에는 불교와 힌두교까지 언급하며 다양한 대비 효과를 보인다.

TT2는 TT1과 번역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외국어 인용문에 대해 돌음체를 사용했다. TT2는 장면 묘사에 대해 지붕 아래가 아닌 “지붕 속”이라고 번역했다. 단순한 단어의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지붕속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자칫 실제 존재하는 성가대가 아닌 천정 유리에 그려진 그림을 연상시킬 수 있다. TT3는 “《그리고 오 둥근 천정 속에서 합창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여!》”라고 번역했고, 외국어 인용문을 쌍각쇠괄호로 묶어 표기했다. TT6는 아무 표기가 없어 외국어라는 점을 독자들은 인지할 수 없다. 번역을 살펴보면 “그리고 오 둥근 천정 속에서 합창하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여!”라고 번역하여 정확한 장소를 묘사하지 않았다. TT7은 “그리고 오오 둥근 지붕의 성당 안에서 노래하는 소년합창단의 노랫소리여!”라고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인용문임을 알리고 있다. 인용문의 번역의 경우 초기 번역들은 꺾쇠나 고딕체를 이용해 표기를 해주고 이후에는 따로 표기를 해주지 않거나 이탤릭체를 사용해 크게 눈에 띄지 않게 한다. 『황무지』와 같은 영시는 한국어로 옮길 경우 외국어에 대해 별로 표기를 하거나 주석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할 수 없다. 오히려 초기 번역가들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359행-365행의 ST와 TT를 비교한다.

ST: Who is the third who walks always beside you?  
 When I count, there are only you and I together  
 But when I look ahead up the white road  
 There is always another one walking beside you  
 Gliding wrapt in a brown mantle, hooded  
 I do not know whether a man or a woman  
 - But who is that on the other side of you? (CPP 73)

TT1: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그 第三者는 누군가?  
 세어보면 모두 그대와 나 뿐인데  
 그러나 저 하얀 길을 내다보면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또 한 사람이 있다.  
 褐色만토를 휘감고, 머리를 싸맨채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그것이 男子인지 女子인지도 모르겠다.  
 - 그러나 그대 곁에 있는 者 누구인가? (126)

TT2: 당신옆에 언제나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내가 헤아려보면 당신과 나뿐  
 그런데 내가 하얀 앞 길을 바라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낯선 사람이  
 갈색 만토에 쌓여 미끄러지듯 걷고있어, 頭巾을 쓰고 있어서  
 男子인지 女子인지 난 알 수가 없어  
 - 그런데 당신 저편에 있는 저 분은 누구요? (276)

TT3: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第三者는 누구  
 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 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 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頭  
 巾을 쓰고 있어  
 男子인지 女子인지는 알 수 없으나  
 -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65)

TT4: 이 황무지, 사막을 탐험해 가는 우리 중  
 극한의 피로에 지친 그대 옆을  
 항상 걸어가는 저 환각의  
 제3의 인간은 누구인가  
 <중략><sup>6</sup>  
 갈색 망토를 두르고, 처네를 쓴 채  
 미끄러지면서  
 항상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 하겠구나  
 - 그러면 그대의 저쪽 편에 있는  
 저 자는 또 누구인가 (79-80)

TT5: 항상 그대 곁을 걸어가는 제 삼의 인물은 누구냐?  
 헤어 보면 오직 그대와 나뿐인데  
 흰 길을 바라볼라치면  
 언제나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갈색 망토를 두르고, 두건을 쓰고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사년지 계집인지도 알 수 없는  
 - 그대 저 편을 가는 자는 누구냐? (209)

TT6: 언제나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없이 걷고 있어,

<sup>6</sup> 다른 번역들이 7-8행으로 번역한데 비해 이정기의 번역은 18행에 이른다. 지면상 ST에 없는 부분의 번역은 생략한다.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98-99)

TT7: 항시 그대 곁을 걷는 제3자는 누구인가?

내가 세어보면, 그대와 내가 함께 있을 뿐이거늘  
 내가 저 하얀 길 앞을 내다보면  
 갈색 망토를 걸쳐 입고, 두건을 쓴 채,  
 살포시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언제나 있고  
 나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으나  
 -- 하여간 그대 곁에 있는 그 자는 누구인가? (108)

제5장 359행-365행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 보이는 환영과 같은 존재라고 언급한다(CPP 79). 이 부분은 환영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동작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신비함을 극대화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다. 번역에서도 이런 묘사는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ST와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먼저 TT1은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또 한 사람이 있다. 褐色만토를 휘감고, 머리를 싸맨채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라고 번역했다. TT1은 ‘갈색망토’에 대한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했으나, 두건을 쓴 상태를 번역하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라고 번역하여 인물묘사가 부정확하다. 인물의 동작은 ST에서 “미끄러지듯”(Gliding)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존재가 영적 존재임을 알려준다. TT1은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걸음걸이를 떠오르게 하므로 환영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없다.

TT2는 “당신 옆엔 언제나 낯선 사람이 갈색 만토에 쌓여 미끄러지듯 걷고있어, 頭巾을 쓰고 있어서 男子인지 女子인지 난 알 수가 없어”라고 번역했다. ST의 의미를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했지만, 환영을 감싼 상태를 “쌓여”라고 번역한 것은 이미지 전달이 어렵게 느껴진다.

TT3는 ST의 문장 구조를 지켰으며,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頭巾을 쓰고 있어 男子인지 女子인지는 알 수 없으나”라고 번역했다. 동작에 대한 번역은 “소리 없이 걷고 있다”라고 하여, 환영의 존재가 침묵하는 상태인지 걸음걸이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다.

TT4의 번역을 살펴보면 “갈색 망토를 두르고, 처네를 쓴 채 미끄러지면서 항상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 하겠구나”이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등가어를 “두건”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처네”라고 번역했다. “처네”는 우리말 ‘머리처네’의 줄임말로 작은 천을 의미하는 말이다.

TT5는 “언제나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갈색 망토를 두르고, 두건을 쓰고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사넨지 계집인지도 알 수 없는”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a man or a woman”을 “사넨지 계집인지도”라고 번역한 것은 현대 시대의 정서와는 어색한 번역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집”은 일반적으로 ‘계집아이’처럼 어린 여자아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인식한다.

TT6의 번역을 살펴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라고 번역했다. 이는 ST의 문장구조와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충실성 있는 번역이다. 하지만 충실한 번역이 오히려 한국어로 읽으면 호흡이 길어지고 지루한 느낌을 준다. “걷고 있어,”부분을 걷고 있다’라고 문장을 분리하는 것이 비교적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TT7은 환영의 동작 묘사를 “살포시”라고 번역했는데, 이 경우 느낌이 다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종교적 존재인 환영을 보는 인물에 관한 의문의 느낌을 고려한다면 다소 어색할 수 있다.

번역에서 등가어의 선택이 장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번역가가 등가어를 찾는 과정에서 문화와 시대에 맞는 단어를 대응시키는 것은 마땅하나 지나친 상상을 발휘한 단어를 대응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또한, 지난 시대의 번역물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황무지』는 등장한 지 1920년대의 시이지만 번역은 현대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그에 맞는 등가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황무지』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번역 문체의 특징을 보면 엘리엇의 문체를 번역본에서도 드러내지는 못했으나, 번역가들은 문장길이, 일부 단어의 추가와 삭제, 행수 변화 등을 통해 한국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반복되는 시

의 운율을 번역에서도 표현했고, 단순한 산문체가 아닌 구어체의 사용과 시조와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사를 사용하여 400행이 넘는 장시인 『황무지』의 느낌을 시답게 전달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 IV. 나가며

시는 시인의 의도가 텍스트 표면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 내면을 독자들이 발견해나가며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문체는 독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일 수 있으며, 번역된 시의 문체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황무지』와 같이 난해한 시의 문체가 번역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시대별로 구분해서 비교하고 분석했다.

첫째, 대부분의 번역은 ST에 나타나는 시적인 분위기를 살리고자 행수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ST에는 없는 수식어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평서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꿔 번역하거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긴 문장을 끊어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초기 번역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넷째, 『황무지』의 리듬감, 행수, 구두점 등을 최대한 ST와 같은 형태로 살리고자 했다. 하지만 등가어를 찾는 과정에서 다소 ST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등가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번역 방법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의역을 시도했다. 완벽한 문체의 재현은 없었지만, 번역가는 ST의 문체를 최대한 재현하고자 했다.

시 번역은 항상 불가능성의 담론으로 귀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것처럼 다양한 번역들은 시대에 걸쳐 등장하고 새로운 번역은 항상 등장하기 마련이다. 번역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는 번역의 독창성과 기량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 시 번역의 불가능성은 극복할 수 있다.

## Works Cited

- Ahn, Joong-eun. *The Explanation of The Waste Land by T. S. Eliot*. Seoul: Dong-in, 2014.  
[안중은. 『T. S. 엘리엇의 『황무지』 해석』. 서울: 동인, 2014.]
- Baker, Mona.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Abingdon. Oxon: Routledge. 1992. Print.
- Barnstone, Tony. “The Poem behind the Poem: Literary translation as American Poetry” in Frank Stewart (ed) *The Poem Behind the Poem: Translating Asian Poetry*. Port Townsend, WA.: Copper Canyon Press, 1.16 (2005): 11-12. Print.
- Bong, Joon-soo. “The difficulties of transating The Waste Land” *In/Outside: English Studies in Korea* 6 (1999): 130-151  
[봉준수. 「황무지 번역의 어려움」. 『안과밖: 영미문학연구회』 6 (1999):130-151]
- Booth, Allyson. *Reading The Waste Land From the Bottom Up*. New York, NY:Paltrave Macmillan, 2015.
- Choi, Hi-sup. *The First Step of Translation*. Seoul: Dong-in, 2006.  
\_\_\_\_\_. *Comprehension of Enlgish Modern Poetry*. Seoul: Dong-in, 1995.  
[최희섭. 『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동인, 2006.]  
[\_\_\_\_\_. 『영국현대시의 이해』. 서울: 동인, 1995.]
- Chung, Sung-yol. *A Study on Domestication and Interpretative Strategie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jong University 2008.  
[정성열. 『영한번역에서의 자국화와 해석적 전략』.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8.]
- Eliot, T. 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5.
- Grossman, E. *Why Translation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1. Print.
- Hwang, Dong-kyu. *The Book of World Poems*. Seoul: Hyunamsa, 1979.  
[황동규. 『세계명시선』. 서울: 현암사, 1979.]
- Kim, Ki-tae. *The Waste Land*. Seoul: Taehakdang, 2002. Print.  
[김기태. 『황무지』. 서울: 태학당, 2002.]
- Kim, Do-hoon, Lee, Eun-sook. “Translating Style Markers of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5.5 (2014): 7-31. Print.  
[김도훈, 이은숙.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나는 형식문체소의 번역』. 『번역학연구』 15.5 (2014): 7-31.
- Lee, Chang-bae. *Collection of Eliot’s poems*. Seoul: Eulyumoonhwasa, 1959.  
[이창배. 『엘리옴選集』. 서울: 을유문화사, 1959.]
- Lee, Jae-ho. *Rose and Nightingale*. Seoul: Jibhyungak, 1967.  
[이재호. 『장미와 나이팅게일』. 서울: 집현각, 1967.]

- Lee, Jung-ki. *Portrait of an Unknown Woman*. Seoul: Jeongeumsa, 1989.  
[이정기. 『어느 여인의 초상』. 서울: 정음사, 1989.]
- Min, Jae-shik. *Hot News From the STYX & Other Poem*. Seoul: YBM Si-sa, 2012.  
[민재식. 『삼도천요즘이야기: 閔在植 詩集』. 서울: YBM Si-sa, 2012.]
- Park, Gab-su. *Korean Stylistics*. Seoul: DaehanTextbook, 1994.  
[박갑수. 『국어 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1994.]
- Park, Ock-sue. “Reflecting the Style in Korean-English Literary Translation - Focusing on *Pasqueflowers in those heartless Days* written by Park Wanso”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46 (2011): 69-65.  
[박옥수.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6(2011): 69-95.]
- Pekkanen, Hilka. “The Duet of the Author and the Translator: Looking at Style through Shifts in Literary Translation”, *New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3 (2007): 1-18. Print.
- Popovic, Anton. “The Concept ‘Shift of Expression’ in Translation Analysis”, in James Holmes (ed) *The Nature of Translation. Essay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ry Translation*, The Hague & Paris/Bratislavw: Mouton/ Slovak Academy of Sciences, 78-87, 1970.
- Seo, Jeong-mok. “A Study on the Comparative Methodology of Styles Based on Translation Shift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57 (2011): 141-174.  
[서정목. 「번역전이에 따른 문체의 비교방법론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회』 57 (2011): 141-174.]
- Vinay, Jean-Paul, and Darbelnet, Jean Louis.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11(1995): 61-9.

김태훈 (전주대학교/전북대학교/강사)

주소: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bogerd@naver.com

논문접수일: 2020. 09. 30 / 심사완료일: 2021. 02. 01 / 게재확정일: 2021. 02. 02